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의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과 지방정치*

송 승 원**

요약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북말루쿠 할마헤라의 자일롤로 왕실(Kesultanan Jailololo)의 상징적 부활(2003년) 사례를 통하여 왕을 중심으로 한 관습 권력의 부활이 지방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자일롤로는 16세기에 멸망했지만, 이웃한 터르나테(Ternate) 왕실의 술탄 무다파르 샤(Mudaffar Sjah)가 사라진 후손을 찾아내었다고 주장하며 왕실을 부활시켰다. 이는 무다파르 샤가 1999년에 신설된 북말루쿠의 최초 주지사 선거의 승리를 위해 과거 터르나테 술탄이 가졌던 대군주로의 권위를 내세워 할마헤라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다. 그는 자일롤로 왕실 부활을 통해 전설 속 말루쿠의 4개 센터 왕국의 균형 복구를 통한 지역 번영이라는 천년운동 사상에 바탕을 둔 레토릭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 자일롤로의 왕실 부활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귀족이 지방정치의 또 다른 핵으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사례이다. 그러나 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습적 권력의 부활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습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로부터 관습 대표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포괄성의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무다파르 샤, 북말루쿠, 인도네시아, 자일롤로, 터르나테, 할마헤라

* 이 연구는 202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논문에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임명익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swsong@hufs.ac.kr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북말루쿠(Maluku Utara) 지역의 자일롤로 왕실(Kesultanan Jailololo)의 부활이 지방정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를 탐구해 보는 데 있다. 인도네시아는 1949년에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대통령 중심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인도네시아에 존재했던 수백 개의 왕조는 정부의 반봉건(anti-feudal) 기조에 따라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¹⁾ 물론 족자카르타의 하멩쿠부워노(Hamengkubuwono) 왕실처럼 네덜란드 식민세력과의 혁명전쟁(1945-1949)에서 공화국 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거나 수하르토 정권의 지방 지지 세력 확보에 도움이 됨으로써 존치를 용인받은 사례가 지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했다.²⁾ 그러나 이러한 군주들도 실질적 통치권이나 기타의 봉건적 특권을 상실하고 관광과 문화의 상징으로만 존속했다. 그런데 1998년에 수하르토 대통령(집권 1967-1998)의 32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고 시작된 개혁기에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지방의 주민들은 고유한 관습(adat)과 함께 사라진 왕실을 부활해 종족, 지역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십 개의 상징적인 왕실이 부활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관습 부활의 이면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해관계

-
- 1) 같은 말레이권의 국가로 역사적 궤적이 인도네시아와 상당 부분 유사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13개 주 중 9개 주에 술탄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5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국왕으로 즉위한다. 입헌군주정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의 수반은 총리이긴 하지만 술탄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와 주의 수반으로,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역시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브루나이는 절대 왕정 국가로, 1967년부터 재위 중인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국왕이 이슬람의 수장은 물론 수상,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겸직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최고 수반을 맡고 있다.
 - 2) 공화국 세력은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을 의미하며, 이들은 식민을 종료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목표를 가졌다.

가 얽혀 있었다.

관습 부활이라는 시대적 유행 속에서 2003년에 자일롤로 왕실도 부활하였다. 개혁기에 부활한 대부분의 왕실이 공화국 수립 이후에서야 사라져버린 것과 달리 자일롤로 왕실은 16세기에 이미 멸망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자일롤로의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후 이주민들이 지역을 매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자일롤로 주민들은 사라진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왕실 혈통이 오래전 끊겼기 때문에 왕실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일롤로의 왕실을 부활한 것은 이웃 터르나테(Ternate) 왕실의 술탄 무다파르 샤(Mudaffar Sjah, 재위: 1986-2015)였다.³⁾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은 그가 지방정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왜 무다파르 샤가 자신의 지역도 아닌 이웃 지역의 왕실을 부활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라진 왕실을 복원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정치에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 하였는지를 점검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기에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지역의 전설과 신화가 현재의 왕실과 지방정치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무다파르 샤에 의한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은 과거에 자일롤로와 터르나테, 그리고 주변의 티도레(Tidore)와 바찬(Bacan)을 포함한 4개의 왕조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이 중 자일롤로가 멸망한 것이 지역 불운의 시작이 되었다는 레토릭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

3)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왕국을 부활시킨 사례는 자일롤로 이외에도 많다. 북 할마헤라의 툴로다는 13세기 말에 왕조가 사라졌지만, 최근에 왕조를 부활시켰다(Song 2021). 이 밖에 원래 왕조가 아닌 부족사회였지만 왕조였음을 주장하며 가상의 왕조(as-if kingdoms)를 만든 사례들도 등장했다(Nishijima 2021 참조).

것은 역사적 실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인 목표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것은 에릭 홉스봄(Hobsbawm 1983)이 제시한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 개념 보다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 2009)의 ‘전통의 접합(articulation of tradition)’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현재적 목표를 위하여 별로 관련성이 없는 과거의 몇 개의 전통을 서로 이어 붙이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다양한 ‘접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Hall 2009; Duncan 2009). 에릭 홉스봄의 개념이 원래 없던 전통을 후대인들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면, 접합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서로 크게 관련성이 없던 전통들을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에 4개국의 관계는 실제로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실제와 상관없이 ‘신화 속 힘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메시지를 무다파르 샤가 어떻게 실제 과거의 전통인 것처럼 접합하여 자일롤로 왕실을 부활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봉건 귀족의 몰락과 개혁기의 부활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봉건 귀족의 몰락 가운데 매우 예외적으로 일부 왕족들이 어떻게 전통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봉건 엘리트에 대한 대응 자세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자일롤로의 멸망과 부활 운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일롤로가 북말루쿠의 현재 지방정치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무다파르 샤의 자일롤로 왕실 부활 과정과 이것이 지방자치, 특히 지방선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진 것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에 대해서 두 편의 주요 기존 분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재거(Jäger 2018)의 연구로, 자일롤로 술탄과 무다파르 샤에 대

한 사회적 분열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 편은 북말루쿠 출신 학자인 만수르와 사이드(Mansur and Said 2018)의 연구로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 운동의 역사를 잘 간추렸다. 이 연구들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지만 본 연구는 자일롤로의 사례를 인도네시아 내 타 왕실의 부활 과정과의 유사성 및 차이성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현지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식민사료의 분석을 통해 자일롤로가 가진 신화적 위상과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는 데서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는 2019년 7-8월에 북말루쿠의 터르나테와 티도레(Tidore), 자일롤로, 롤로다(Loloda) 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왕실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2022년 4월에 이들 몇 명과 온라인 인터뷰를 다시 진행했다. 주요 인터뷰 대상자는 터르나테 왕실의 왕자인 오파 피르만(Ofa Firman), 티도레의 조자우(Jojau: 총리급에 해당하는 왕실 관료)인 아민 파룩(Amin Faarooek), 자일롤로의 조구구(Jogugu: 총리급에 해당하는 왕실 관료)인 해루프딘 사에푸딘(Haerufdin Saefudin)과 또 다른 관료인 자다드(Jadad), 롤로다 출신의 학자 무스타파 만수르(Mustafa Mansur), 롤로다의 조구구인 하빕 마망(Habib Mamang) 등이다.

II. 인도네시아 봉건 귀족의 몰락과 부활

19세기에 인도네시아 군도를 점령한 네덜란드는 지역을 직·간접 통치 지역으로 구분했다.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Aceh)나 칼리만탄의 반자르(Banjara), 발리의 불롱안(Bulungan)이나 바둥(Badung) 왕가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식민에 저항한 왕실도 있었지만, 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간접통치 지역에서 전통 군주들은 식민정부에 협력했다. 군주

들은 세금을 걷어 식민정부에게 전달하고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 봉급생활자로 전락했다. 백성들은 왕가가 자신들을 식민 수탈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식민에 협력했다고 비난했고,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봉건주의 타파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다(Rubinstein 외 1999, 55-59).

1942년에 일본이 유럽 세력을 몰아내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자 친(親) 네덜란드 성향의 봉건 엘리트들은 이를 두려워했다. 칼리만탄 서부의 폰티아낙(Pontianak) 왕실은 일본에 협력을 거부하다 왕실 일원이 거의 몰살당하기도 했다(Ooi 2011, 104-107). 세계 제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자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7일에 자주독립을 선포했지만, 네덜란드 세력은 군도의 재식민화를 목표로 다시 진입했고,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혁명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다수의 왕족과 귀족은 네덜란드의 재진입을 환영했고, 민족주의 세력들은 이들 봉건 엘리트들과 극한 대립을 벌이게 되었다(Harvey 1989; Anderson 1972; Shiraishi 1986). 북부와 동부 수마트라 지역에는 민중들이 봉건 귀족을 자발적으로 처형하는 사회 혁명이 발발하기도 했다(Reid 2014; Kahin 1952). 이후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네덜란드가 결국 식민을 포기하였고, 1949년 12월의 헤이그 평화 협정을 통해 대통령 중심의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출범했다.

수카르노(집권 1945-1967)와 수하르토(집권 1967-1998)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국 정부는 모두 반(反)봉건의 기치를 내세우고, 봉건 계급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1970-80년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여전히 많은 지방 주민들이 왕실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이 반발을 불러와 자칫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Thufail

2013, 173). 그러나 왕족들은 여러 법을 통해 기존의 권력과 특권을 박탈당했다. 왕실 토지(Tanah Hadat)는 1960년 발표된 “기본농업법(UU Pokok Agraria)”을 통해 국가에 귀속되었다. 1985년에 발표된 “대중기구법 8호(UU no. 8 tentang Organisasi Kemasyarakatan)”는 왕실을 ‘문화 기구(Organisasi kebudayaan)’로 규정함으로써 나흐다툼 올라마(Nahdlatul Ulama)와 같은 종교기구나 환경 기구와 같은 사회기구의 선상에 위치시켰다(Thufail 2013, 173). 1992년의 “문화재보호법 제5호(UU No. 5 Tahun 1992 tentang Benda Cagar Budaya)”는 왕궁과 부속 건물들을 국가 문화재로 규정하고, 보호를 위해 대중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설령 왕족일지라도 문화청(Dinas Kebudayaan)의 재가 없이 왕실 건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왕족이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서마저 제한적인 접근만을 허용받을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공화국 정부들은 일부 왕실과 정치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수카르노는 일부 왕족을 지방 관료(pegawai daerah)로 임명하여 지방정부를 감독하게 했다. 봉건 엘리트들에 대한 민중들의 충성심을 이용해 공화국에서 일탈하려는 움직임으로 혼란했던 지방정치를 안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수하르토와 집권 여당 골카르(Golkar) 역시 일부 왕실 인사들을 주지사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삼아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다(Magenda 1989, 10; Kahin 1952).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으로 영민한 왕족들은 중앙의 관료 및 군부 세력과 결탁하고 골카르와 민족당(Partai Nasional Indonesia) 등의 정당에 가입하여 의회에 진출했다(Thufail 2013, 173; Magenda 1989, 37). 1971년 선거에서 북 수마트라, 남 술라웨시, 말루쿠, 중부 자바의 귀족들이 골카르 후보로 등록했고 족자카르타의 하멩쿠부위노 9세, 솔로의 망쿠네고로 8세(Mangkunegoro VIII) 등이 골카르의 지부장이 되

었다(Magenda 1989, 31). 이를 통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귀족 세력은 지방정치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권의 왕실을 향한 밀월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대표적 사례가 북말루쿠의 터르나테 왕실이었다. 48대 술탄이었던 무다파르 샤는 인도네시아에서 부활한 왕족 중 지방정치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한 인물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38년에 술탄 자비르 샤(Djabir Sjah)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자비르 샤는 1946년에 식민정부가 내세운 “동(東)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의 수립 계획에 협조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의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말루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식민에 협력한 대가로 그는 수카르노에 의해 자카르타로 유배되어 내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강등되어 일하게 됨으로써 말루쿠 왕실은 위기를 맞았다(Hasim 외 2021). 아버지의 부재중에 왕세자 직에 오른 무다파르 샤는 기민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수하르토와 골카르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를 바탕으로 1977년에 국회의원에 임명되었다. 이후 1986년에 터르나테 술탄이 되었고, 북 말루쿠 지방의회(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의장(1999-2004)과 골카르의 말루쿠 지부장을 역임했다(Bubandt 2014, 88; Hasim et al 2021, 19; Jäger 2018, 91).

그러나 무다파르 샤가 술탄이 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정부와 왕실의 협력 관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수하르토가 중앙에서 임명한 군부 인사들이 지방정치를 독점하면서 봉건 엘리트들의 세력이 저물기 시작했고, 터르나테 왕실처럼 예외가 존재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왕실은 마지막 왕들이 사망하면서 후계자를 뽑지 않아 왕실이 자연 소멸했다. 점차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귀족 신분이 출세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므로 이를 애써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해졌다. 출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출생 신분이 아닌 개인의 능력, 즉 교육

의 정도나 사업 수완, 또는 정권과의 유착 관계 등이라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자바 외곽도서에서 봉건 귀족들은 사회의 인식 속에서 여전히 신망받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여전히 주민들은 누가 귀족의 혈통인지, 누가 평민이나 노비의 혈통인지를 기억해 왔다.

유명무실해진 봉건 엘리트 세력은 수하르토가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와 민주화에 대한 압박을 못 이겨 1998년에 갑작스럽게 하야하고, 도래한 개혁기에 변화를 맞게 되었다. 수하르토의 자진 사퇴 후 부통령이던 유수프 하비비(B.J. Habibie, 임기: 1998. 5-1999.10)가 대통령에 올랐다. 짧은 집권기 동안 하비비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변화시킬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법과 지방자치법 패키지였다. 그중 1999년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UU no. 22)는 1950년대 후반에 실행이 중지된 지방자치법을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법안을 이어받은 메가와티(Megawati) 대통령은 2004년에 지방정부에 관한 법 32호(UU No. 32/2004 tentang Pemerintahan Daerah)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도록 변경하였다(Nordholt and Said 2007, 14-15). 이는 수하르토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적 독재 밑에서 눌러있던 분리주의 운동 및 개혁기에 일어난 다양한 민간 폭력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기존에 지방정치를 장악하던 군부 세력과 외지인들이 물러나고, 토착인들이 지방정치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하자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고자,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라진 관습과 왕실을 부활시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⁴⁾ 왕실들의 협의체인 “군도 왕실 관습 협의회 (Majelis Adat Kerajaan Nusantara)”에는 2020년 기준으로 56개의 왕실이 등록되었다(Majelis Adat 2020/1/29). 이렇게 부활한 왕실들은 포럼 코무니

4) 인도네시아의 군이 과거 왕국의 경계를 따라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군 단위에서 왕실을 부활한 사례가 많다.

카시(Forum Komunikasi)라는 대화 창구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2년마다 “군도 왕실 축제(Festival Kraton Nusantara)”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행사도 전국의 왕들이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복위된 왕족들은 지방정치에 참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들이 상징적인 권위를 가졌을 뿐이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봉건 엘리트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비판은 민주주의 수호자들뿐만 아니라 관습적 권력 부활 세력들 사이에서도 불거졌다. 인도네시아에서 관습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습 부활이며, 하나는 마을과 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관습 부활이었다. 후자를 추진한 세력의 경우에는 서발턴(subaltern) 운동의 연장선에서 “원주민”으로서의 토착적 권리를 강조하여 자원과 영토 문제에서 유리한 법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아마존의 부족 등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룹과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대규모 국가적 개발 사업을 저지하거나 국가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일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테면 술라웨시의 고산 지대인 라우제(Lauje)의 주민들이 부족 생활을 했던 과거의 기억과 관습을 복원하여 “원주민의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서 추진하는 댐 개발 사업을 막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Li 2000). 마을과 부족을 단위로 한 관습 운동가들은 아만(AMAN: Aliansi Masyarakat Adat Nusantara: 군도 관습 그룹 연합)이라는 우산 조직을 만들어 연대 활동을 추진해왔다. 아만을 중심으로 한 이 관습 그룹은 봉건 엘리트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관습적 권력 부활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해왔다(Jäger 2018, 190-191).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여 왕족들은 왕실이 지역의 관광과 문화적 중심지일 뿐이며 현지 사회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천명했

다. 특히 종족 간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사회적인 소임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Van Klinken 2007, 162). 이는 개혁기 직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도네시아인들이 겪었던 대혼란과 관련되어 있었다. 수하르토가 갑자기 물러나고 강타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그동안 군부 독재에 억눌려있던 종족 간, 종교 간, 인종 간 갈등이 종교 전쟁의 유형을 띠고 전국을 초토화한 것이다. 칼리만탄의 원주민 다약족이 이주민 마두라인을 대상으로 한 머리 사냥(head-hunting)을 시작했고, 술라웨시 포소(Poso)에서 무슬림-기독교 간의 살상이, 그리고 말루쿠 전 지역에서도 기독교-무슬림 간 유혈 충돌이 잇따르고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심각한 종족, 종교 간 갈등을 타개할 대안으로 전통 관습과 왕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모색되었다. 왕실들이 다양한 타 종족과의 동맹 결혼을 통해 사실상 초(超) 종족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족 분쟁에서 이를 상쇄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부 칼리만탄에서 부활한 멍파와(Mempawah) 왕가는 부기스, 다약, 말레이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강조하며 종족 간 화합의 구심점이 되려고 노력했다(Van Klinken 2007).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왕실을 부활시킨 이면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적 목표가 작동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설명과 달리 사실 왕실과 관습의 부활은 특정 종족의 배타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수립된 것도 사실이다. 수마트라 서쪽의 먼타와이(Mentawai) 제도에서는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강화시켜 “지배통치자”들인 미낭카바우(Minangkabau) 인과의 관계에서 자원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사용했다(Eindhoven 2007, 69). 서북부 칼리만탄에서 부활한 말레이계 왕실인 삼바스(Sambas)와 란닥(Landak)은 개혁기의 다약족 원주민과 마두라족, 멀라유족 간의 종족 갈등이 수립의 배경이었다. 마두라족은 자바섬 동쪽 끝의 마두라섬에 거주하던 종족으로 수하르토가

칼리만탄으로 이주시켰지만, 멀라유족은 삼바스, 란닥, 폰티아낙 왕국의 전통 지배계층이었다. 수하르토 정부는 지역 개발이나 통치에 이주민들을 선호하여 이들이 지역 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고, 다약족 원주민들은 그들의 주도적 위치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수십 년간 토로했다. 수하르토의 강력한 군부와 경찰을 두려워하여 침묵의 세월을 보내던 중, 수하르토 하야 이후 무너진 공권력을 틈을 타 다약족은 이주민들을 살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멀라유족은 종족의 결속을 강화하고, 마두라인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라져버린 왕실을 부활한 것이다(Van Klinken 2007, 156).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왕실은 종족의 정체성 강화 및 이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우월성 확보 등의 도구적 성격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수립된 왕실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나 자원 문제 등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도구로 사용됐다. 우선 왕실의 부활을 통해 왕족들은 1960년대 초에 실시된 일련의 반봉건법으로 인해 국가에 빼앗긴 왕실 토지의 환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수백만 헥타르가 실제로 반환되었다(Van Klinken 2007). 보다 거시적으로 왕실 부활과 관습의 부활은 지방자치 시대에 인도네시아에 크나큰 정치적 변화를 몰고 온 행정구역 개편(pemekaran)을 성공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다. 개혁기에 수많은 지방 주민들은 주나 군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합쳐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독립시키는 개편안을 요구해왔고, 그 결과 수하르토 시절에 27개였던 주가 개혁기에 34개로 늘어났으며, 1999년에 303개였던 군과 시는 2022년 기준 514개로 증가했다(Fajri 2022). 행정구역 개편 요구는 지난 수십 년간 억눌려있던 지방 인구의 분노 표출이자 지방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수하르토의 이주 정책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이 약화되었고, 원주민-이주민 사이의 이권 다툼이 지속되면서 서로의 행정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것

도 주요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은 왕실을 부활시키고 과거 이 지역이 왕국의 영토였음을 강조함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Hadiz 2010, 103).

일부 왕족은 지방에서 보다 실질적 행정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전통 왕조 중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아 온 족자카르타의 왕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큰 제도적 도약을 추진했다. 2003년에 족자의 하멩쿠부위노 10세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술탄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족자카르타 특별주의 주지사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왕실들이 보여준 것 중 가장 급진적인 행보였다 (Van Klinken 2007, 151). 사실 이 법안은 수카르노가 혁명전쟁 시절에 공화국을 지지한 선대 술탄에게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총선과 대선 이후 조용하게 사그라들었다가 2012년에 최종적으로 법으로 통과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유도요노(Yudhoyono)가 이 법안이 민주적이지 않다며 반대를 표명하자 족자카르타의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골카르 소속이었던 술탄의 정당 가입 불가라는 조건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Harsono 2018). 다른 지역에서도 봉건 귀족이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례로 술라웨시 동남부주의 부톤(Buton)과 서부의 मामужу(Mamuju) 등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거의 모두 귀족 출신이었고,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직을 독점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과 지방정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왕국의 멸망과 이것이 현대 북말루쿠 지방정치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일롤로 왕국의 멸망과 천년왕국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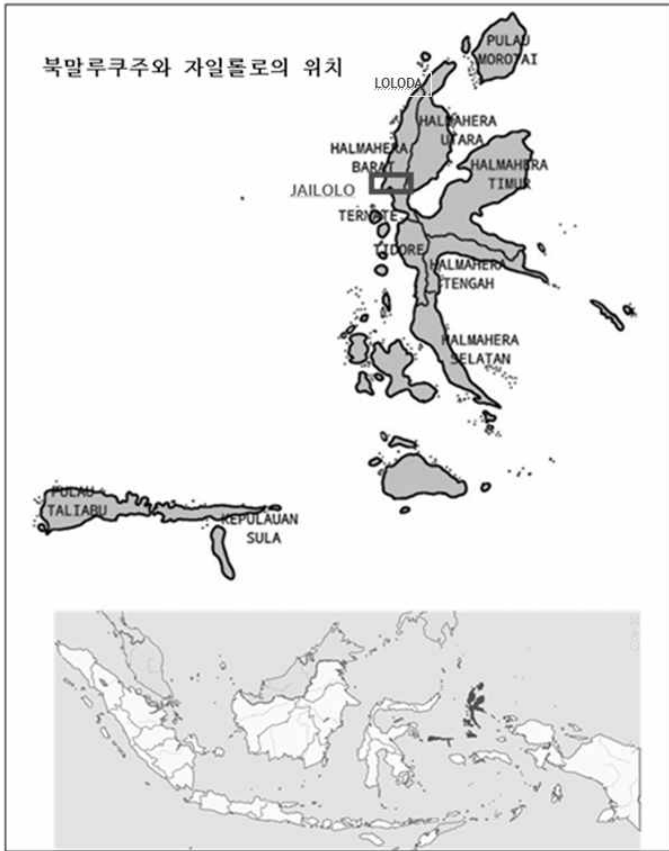
2003년의 자일롤로의 부활은 인도네시아 여타 왕실의 부활보다 극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서론에서도 설명했듯, 이 왕조는 16세기에 멸망했고, 왕실 후손의 존재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한 자일롤로 왕실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왕실이 말루쿠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화적 위상과 지방자치 시대에 새로운 액터(actor)로 등장한 주변의 왕족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말루쿠 제도는 북으로 필리핀, 서로 술라웨시, 남동쪽으로 파푸아를 면하고 있으며, 대략 35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말루쿠주는 거대한 할마헤라섬과 왼편의 터르나테, 티도레, 바찬(Bacan) 등의 작은 화산섬들, 그리고 남부의 탈리아부(Taliabu) 제도와 술라(Sula) 제도, 오비(Obi) 섬 등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자일롤로는 할마헤라의 북서쪽의 해안가에 있던 왕국이었고, 지금은 자일롤로라는 이름의 읍(kecamatan) 이름에 명칭이 남아있다(지도 참조). 주의 인구 중 75-80 퍼센트가 무슬림이지만, 할마헤라의 주민들은 19세기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져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다. 특히 할마헤라의 주요 종족인 카오(Kao)와 토벨로(Tobelo)족은 대부분이 개신교도이다(Wilson 2008, 31).

말루쿠 제도는 전통 시대에 향료 제도(Spice Islands)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다. 말루쿠의 일부 섬에서만 자라는 정향과 육두구는 금보다 비싼 향료로 불렸고, 14세기 무렵에는 이미 북부 자바, 말레이반도의 말라카, 인도의 구자라트, 페르시아와 지중해를 잇는 인도양 국제무역의 주요 무역품이 되었다(Wilson 2008, 32). 향료는 터르나테와 티도레 섬의 항구를 중심으로 집산되어 아랍과 중국, 인도, 유럽까지 팔려나갔

고 군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해상 왕국을 발전시켰다. 북말루쿠의 왕국들은 15세기 중반부터 이슬람을 수용했고, 필리핀 남부와 브루나이 등에 이슬람을 전파했다(Andaya 1993, 34).

<그림 1> 북말루쿠와 자일롤로 위치



출처: 필자 작성

말루쿠 세계에서 영토 면으로는 할마헤라가 가장 크지만, 막상 정치, 경제적 센터를 담당한 것은 터르나테, 티도레, 바찬, 그리고 자일롤로

등 4개의 작은 왕국이었다. 14세기부터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이들 왕국은 키에 라하(kie raha: ‘4개의 산’이라는 뜻)라고 불리면서 할마헤라는 물론 파푸아와 술라웨시 일부 지역의 대군주(overlord) 역할을 하며 조공을 받았다. 키에 라하의 센터성은 다양한 현지 신화 속에서 잘 드러난다.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말루쿠 총독이었던 로베르투스 파트부르헤(Robertus Padbrugge, 임기: 1677-1682)는 터르나테에 전해 내려오는 다섯 개의 센터 왕국에 대한 신화를 채록했다. 이에 의하면 말루쿠인들은 천상-지상-지하 세계를 잇는 우주관 속에서 다섯 왕국이 각각의 세계를 대표한다는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할마헤라 북서쪽에 있었던 고대 왕국인 툴로다는 ‘문의 벽(Wall of the Gate),’ 자일톨로는 ‘만의 군주(Ruler of the Bay),’ 티도레는 ‘산의 군주(Ruler of the Mountain),’ 터르나테는 ‘말루쿠의 군주(Ruler of Maluku),’ 바찬은 ‘땅 끝의 군주(Ruler of the Far End)’라고 비유되었다(Andaya 1993, 51). ‘문의 벽’이라는 은유는 천상과 지상의 세계가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툴로다가 바로 이 두 세계를 관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툴로다 왕국은 파트부르헤가 당도한 시기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왕국이었다.⁵⁾ 그런데도 툴로다가 센터 신화에 포함된 것은 말루쿠인들의 전통적 관념 속에서 북쪽이 사후(死後), 혹은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Andaya 1993, 52-53).

북말루쿠의 또 다른 신화에서는 툴로다를 제외한 4개국을 중심으로 한 센터성이 드러난다. 이 신화는 최근 부활된 터르나테, 티도레, 바찬, 자일톨로 왕실이 공통적으로 왕실 기원 신화로 채택한 것으로, 자파르 사딕(Jafar Sadik 또는 Jafar Sadek)이라는 아랍인과 하늘에서 하강한 선녀의 결합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매우 유사

5) 현지 구술에 따르면 툴로다는 아마 13세기 무렵 멸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지역 내의 몇 개의 씨족 그룹들은 한 가난한 어부를 왕(kolano)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Song 2021, 313).

한 이 신화를 말루쿠 연구자인 판 프라센(van Fraassen 1987, 1:16-18)이 채록했다:

자파르 사딕은 아라비아에서 배를 타고 와 터르나테에 정착했다. 어느 날 그는 일곱 명의 선녀(bidadari)가 하늘에서 내려와 센토사 강에서 새의 모습으로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선녀 중 막내의 이름은 누르사파(Nurus Safa)였다. 사딕이 그녀의 날개옷을 훔쳤으므로 누르사파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녀는 사딕과 결혼 후 세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부카(Buka), 다라갓(Darajat), 사하밧(Sahabat)이었다. 어느 날 누르사파는 지붕 위에 숨겨진 날개옷을 찾아내어 하늘로 돌아가 버렸다. 사딕은 이를 알고 구헤바(guheba)라는 이름의 물수리의 등에 올라타고 하늘로 갔다.

천상의 왕은 그에게 여러 시험을 거치게 했는데, 그중 마지막 과제는 왕의 요술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일곱 선녀 중 누르사파를 찾아 내라는 것이었다. 자파르가 근심하고 있는데 구푸상(Gufu sang)이라는 커다란 푸른 파리가 나타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젖 냄새가 나는 누르사파의 몸 위에 앉음으로써 무사히 누르사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자 천상의 왕은 딸과 사딕의 혼인을 재가했다. 사딕과 누르사파는 하늘에서 네 번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의 이름은 마슈르 말라모(Mashur Malamo)였다....이들은 지상으로 내려갔다. 장성한 사딕의 아이들은 사딕에게 물건을 하나씩 받았다. 부카는 나무 그루터기를 받고 마키안(Makian, 이후 바찬)으로 떠나 왕국을 세웠다. 다라갓은 유목(driftwood)을 받고 모티(Moti, 이후 자일롤로)로, 사하갓은 돌을 받고 티도레로, 마슈르 말라모는 의자를 받고 터르나테로 가서 각각 건국왕이 되었다.⁶⁾

이 신화에서 자일롤로는 다른 3개의 센터국과 형제 관계로 비유되면서 말루쿠의 중심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에 자일롤

6) 마키안섬과 모티섬은 티도레 아래쪽에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자 주민들이 바찬과 할 마헤라의 서쪽으로 각각 이동하여 바찬과 자일롤로 왕국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사딕의 아이들이 받은 물건은 왕실의 가보가 되었다.

로가 멸망했고, 바찬 역시 왕실은 유지되었지만 일찌감치 세력이 쇠퇴했으므로 근대에 말루쿠 세계를 받치는 센터는 사실상 터르나테와 티도레의 두 개 왕국이었다. 두 왕국은 신화에서 형제국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공국을 서로 따로 두고 각자의 영역을 통솔했다. 터르나테는 17세기 이후 할마헤라 북부, 암본(Ambon), 세람(Seram), 반다(Banda)를 비롯해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누사텡가라의 플로레스(Flores), 북 술라웨시의 머나도(Menado)와 고론탈로(Gorontalo), 중남부 술라웨시의 부톤과 방가이(Banggai), 토붕쿠(Tobungku)에서 조공을 받았다. 반면 티도레 술탄들은 할마헤라 남부와 게베(Gebe), 감랑에(Gamrange), 라자암팟(Raja Ampat) 등지의 파푸아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Warnk 2010, 112). 라자암팟 지역의 라자(왕)들은 대략 15세기 말부터 티도레 술탄을 대군주로 여기고 술탄의 용인하에 바다에서 노략질을 했으며, 획득한 물품 일부를 조공으로 바쳤다. 티도레가 전쟁에 휘말리면 옹성한 라자암팟의 병사들이 티도레 술탄을 수호했다(Warnk 2010, 113; 송승원 2016, 166). 말루쿠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는 터르나테와 티도레 등 센터 왕국의 정치, 경제 체제와 관료 체제가 복제되었다. 터르나테, 티도레의 수도를 일컫는 용어인 소아시오(Soa Sio)는 할마헤라에서도 중심 도시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구구(jogugu), 조자우(jojau), 카피타 라웃(kapita laut), 카피타 키에(kapita kie) 등의 왕실 관직도 조공 지역의 관직명으로 복제되어 사용되었다.⁷⁾

향료를 찾아 유럽 세력 중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발을 디딘 포르투갈 무역상들은 1511년에 말레이반도의 국제무역 왕국인 멀라카(Kesultanan Melaka)를 정복하고 무역 기지를 설치했다. 이후 터르나테에 진출해 1522년에 요새를 건립했다. 처음 말루쿠의 왕국들은 유럽 상인들을 무

7) 조구구, 조자우 등은 현대 정부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관료이며, 카피타 라웃은 해군 총장, 카피타 키에는 육군 총장에 해당하는 왕실 관료이다.

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우호적 무역 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유럽 상인들은 향료무역 독점을 위해 현지 왕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유럽인-토착 왕국 연합 세력들과 지속적으로 무역 전쟁을 벌였다. 키에 라하 국가들도 서로 다른 유럽 세력과 결탁하여 무역 전쟁을 치렀고, 관계가 악화되었다(Hermkens 외 2011, 61).

말루쿠 세계에 불어닥친 무역 전쟁의 여파는 1551년의 자일롤로의 멸망을 가져왔다. 멸망 이전의 자일롤로는 북말루쿠에서 강력한 왕국이었다고 전해지며, 아마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왕국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아민 파룩 인터뷰. 2019. 7. 8). 자일롤로의 마지막 왕인 카타라부미(Katarabumi. 재임: 1534-1551)의 통치 당시 자일롤로의 영토는 할마헤라 북동쪽의 토벨로와 북부의 모로타이 제도에까지 이르렀다(Amal 2007, 31-36; Andaya 1993, 130). 향료무역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스페인과 자일롤로가 무역 독점 관계를 맺자 포르투갈은 터르나테와 동맹을 맺었고, 양측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자일롤로는 요새를 세우고 정글에서 항진했다. 당시 자일롤로의 토바루인(Orang Tobaru)들은 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전해진다(자다드 인터뷰. 2019. 8. 8). 하지만 포르투갈이 식수원을 차지하면서 결국 자일롤로는 패배했다. 이때 카타라부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말루쿠 세계에는 그가 죽지 않고 영적 존재(makhluk halus)가 되어 아직도 인간의 세계를 떠돌고 있으며, 언젠가 메시아적 전설 속의 ‘정의의 왕’인 라투아딜(Ratu Adil)로 돌아와 자일롤로를 재수립하고 북 말루쿠의 부귀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담론이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다(Jäger 2018, 47).⁸⁾

카타라부미의 사후에 아들인 사우보(Saubo)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는 주권을 상실하고 터르나테 술탄의 대리 왕으로 강등되었다

8) 자일롤로 술탄을 둘러싼 천년 운동적 메시아 사상은 인근 파푸아 지역의 화물 숭배와 천년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Kamma 2013; Widjojo 2007 참조).

(Andaya 1993, 130). 1620년에 사우보가 죽자 자일롤로는 터르나테의 공국으로 전락했다(Mansur and Said 2018, 140). 터르나테 술탄은 상아지(sangaji)라는 관료를 파견해 자일롤로에서 세금을 거두어 바치게 했다(Mansur and Said 2018, 140). 이후 자일롤로의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이탈하여 인구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도래해 거주하기 시작했다(해루프딘 사에푸딘 인터뷰. 2019. 8. 8).

그러나 왕국의 멸망 이후에도 말루쿠인들은 끊임없이 자일롤로를 기억했는데, 이는 신화 속 4개 왕국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말루쿠가 번영한다는 집단적 믿음 때문이었다. 20세기 초의 네덜란드 식민 관료였던 콜하스(Coolhaas 1923)는 북말루쿠인들이 자일롤로 술탄의 재림과 키에 라하의 밸런스에 대한 신화를 믿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숫자 ‘4’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완벽함을 뜻하는 길한 숫자였고, 말루쿠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일롤로의 붕괴 이후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은 모두 4개국의 밸런스가 무너진 탓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570년에 포르투갈이 내정 간섭 끝에 터르나테 술탄 카이룬(Sultan Khairun, 재임: 1534-1570)을 살해한 사건은 터르나테가 형제국인 자일롤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 여겨졌다(Wilson 2008, 34).⁹⁾ 또한 17세기 이후 향료무역에서 북말루쿠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자 터르나테와 티도레는 유럽의 간섭 속에서 점차 세력 균형을 상실했고, 두 왕국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아버지로 둔 ‘자식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Andaya 1993, 176; Wilson 2008, 32-33; Bubandt 2014, 106). 19세기의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는 재앙의 클라이맥스로 여겨졌다(Andaya 1993).

외세의 내정 간섭과 식민이 가속화되면서 말루쿠 세계에서는 ‘상상된 통일성(imagined unity)’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부상했고, 자일롤

9) 카이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바불라(Babullah, r. 1570-1583)는 포르투갈 세력을 축출했다.

로를 부활시켜 우주적인 밸런스를 회복시키고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자 하는 천년 운동(millenarian movements)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누쿠의 난(Revolt of Prince Nuku, 1780-1810)이었다. 누쿠는 티도레의 술탄이었는데, 네덜란드가 티도레의 내정에 개입하여 친 네덜란드 성향의 친족을 대신 왕위에 앉히자 이에 항거하여 항쟁을 시작했다. 전쟁은 1780년에 발발해 무려 20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누쿠는 영국 세력의 도움을 받아 터르나테에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을 통해 말루쿠 세계를 재건하고자 했다. 누쿠는 자신을 티도레, 세람, 파푸아의 술탄으로 천명하고, 1797년에 마키안 출신으로 티도레의 조자우직을 맡고 있던 모하마드 아리프 빌라(Mohammad Arif Bila)를 자일롤로의 술탄으로 앉혔다(Andaya 1993, 235; Bubandt 2014, 112). 이를 통해 누쿠는 할마헤라 주민들의 지지를 유도하여 반 네덜란드 항쟁에서 승리하고자 한 것이다(Widjojo 2008, 50). 그러나 사실상 빌라는 자일롤로의 왕실 혈통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많은 현지 주민들이 그의 술탄 즉위에 반대했다고 전해진다(Mansur and Said 2018, 141). 1805년에 누쿠는 사망했고, 아리프 빌라는 네덜란드군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신 중 절벽에서 떨어져 1807년에 사망하고 말았다(Mansur and Said 2018, 141; Katoppo 1984).

또 다른 유사한 운동은 터르나테의 다노 바바 하산(Dano Baba Hasan)이 일으킨 것이었다(1876).¹⁰⁾ 그는 1832년에 남말루쿠의 세람 섬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중에 자일롤로 부활을 통해 신화적인 황금 시기, 즉 사람들이 조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자신을 자일롤로의 술탄으로 인정해 달라고 청했다(De Clercq 1890, 104). 식민정부로부터 답이 없자 그는 토벨로와 갈렐라 등지의 할마헤라인들을 동원해 난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하

10) 다노는 터르나테의 왕족을 칭하는 타이틀이다.

여 다른 섬으로 유배되었다(Amal 2007, 46-48; Mansur and Said 2018, 143). 이런 종류의 운동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도 되풀이되었다(Bubandt 2014, 113). 1914년에는 바바 하산의 후손인 다노 재유딘(Dano Jaeyudin)이 라자 암팟 지역의 웨다(Weda) 섬에서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고 자신을 자일롤로 술탄이라 선포했지만 역시 진압되어 터르나테에 수감되었다(Amal 2007, 48-49; Mansur and Said 2018, 14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전설 속에서 키에 라하 4개국의 균형적 발전은 지역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여겨졌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자일롤로는 터르나테에 의해 멸망했고, 터르나테와 티도레는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아래에서는 무다파르 샤가 어떻게 신화에 등장하는 4개국의 균형이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접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북말루쿠의 지방정치와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

북말루쿠의 왕실 부활은 현대 사회에서 왕실이 단순히 문화적 상징으로 존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주로서의 권위를 되살려 지방정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바탕을 둔 사건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다파르 샤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개인적 야심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키에 라하 왕국들은 말루쿠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수카르노는 2차 대전 이후 키에 라하의 변방에 불과하던 중부 말루쿠의 암본을 주도(主都)로 하는 말루쿠주(Maluku Province)를 수립했다. 암본인들은 식민 통치에 가장 많이 협력한 종족이었고, 인구 대부분이 유럽식 교육을 받고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탓에 다른 종족들로부터 “검은 네덜란드인(Black Dutch)”이

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암본인들은 네덜란드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혁명기에 공화국의 수립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국 수립 이후인 1950년대에 남말루쿠공화국(Republik Maluku Selatan) 운동이라는 분리독립 운동까지 벌였으나 진압되었다(Wilson 2008, 35).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암본이 막상 말루쿠 세계의 센터가 되자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북말루쿠 주민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북말루쿠를 새로운 주로 분리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오파 피르만 인터뷰. 2019. 7. 3). 1997년부터 말루쿠인들은 다시 주 분리 계획을 추진했고, 1999년 10월에 마침내 북말루쿠주가 새로 수립되었다(Wilson 2008, 45-48).

2001년으로 예정된 최초의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누가 주지사가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선거는 곧 터르나테와 티도레 왕족들의 정치적 야욕의 장이 되었다. 4명의 주요 주지사 후보는 무다파르 샤, 바하르 안딜리(Bahar Andili, 당시 중부 할마헤라 군수)와 그의 형제인 샴시르 안딜리(Syamsir Andili, 당시 터르나테 시장), 그리고 마키안 출신의 정부 관료였던 타입 아르메인(Thaib Armain)이었다(Wilson 2008, 46). 무다파르 샤는 군주로서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골카르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은 바로 이 무다파르 샤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 무다파르 샤는 다른 지역의 상징적인 술탄들과 달리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권위를 자랑했다. 터르나테 주민들은 공화국에서 임명한 주지사, 군수, 시장을 제치고 술탄을 지역의 정치적 대표로 인식했다. 무다파르 샤가 주지사직에 도전하게 되자, 그는 이제 터르나테를 벗어나 북말루쿠 전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지지 획득의 방식은 그가 터르나테에서 했던 방식, 즉 과거

에 위대했던 전통 군주로서의 카리스마와 전통적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통시대에 터르나테의 조공지역이었던 북부 할마헤라를 술탄의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관습 영역으로 인식하고, 마을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과거 터르나테의 선조 술탄들이 담당했던 대군주(overlord)의 권위를 재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다파르 샤는 할마헤라에서 터르나테 술탄들이 대리 통치를 위해 파견했던 상아지, 키말라하(kimalaha) 등의 보바토(bobato: 관습 관료)들을 상징적으로 선출했다(Jäger 2018, 91). 무다파르 샤는 2015년에 롤로다의 조구구도 선출했는데, 이는 터르나테의 과거 조공지역에서 대군주로서의 권위를 다시 내세우기 위한 방편이었다(하빔 마망 인터뷰. 2019. 7. 4).¹¹⁾ 당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통 관습의 부활이 대대적으로 유행이었던 시기였지만, 마땅한 관습의 중심 세력이 아직 없던 할마헤라의 많은 주민은 카리스마 넘치는 무다파르 샤에게 지지를 보냈다. 특히 과거에 터르나테 술탄들의 충실한 심복 역할을 했던 자일롤로 지역의 토벨로와 사후의 주민들은 그의 열렬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무스타파 만수르 인터뷰. 2021. 3. 4).

무다파르 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말루쿠에서 자신의 권위를 높일 다른 방법을 추진했다. 19세기에 누쿠와 바바 하산이 그랬듯 전통시대에 센터 역할을 했던 북 말루쿠의 4개 왕조의 완전한 부활을 통해 북말루쿠의 번영을 이룩하고, 그 공적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주지사 선거에 당선되길 기대한 것이다(Bubandt 2014, 83-85; Wilson 2008).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미 티도레와 바찬의 두 왕실은 복구되어 있었다. 티도레 왕실은 마지막 술탄인 자이날 아비딘 샤(Zainal Abidin Shah, 재위: 1947-1967)의 서거 이후 1999년에 복구되었는데, 이 역시

11) 무다파르 샤가 선출한 조구구가 가장 높은 관습의 수장이었던 롤로다에서는 2016년에 백 년 전에 사라진 왕(kolano)을 복위시키는 의례를 열어 왕실이 부활하였다 (Song 2021 참조).

북말루쿠 주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었다. 선거에서 무다파르 샤와 경쟁을 벌인 바하르 안달리는 무다파르 샤가 술탄으로서의 권위로 인기를 끌자 전통적으로 터르나테의 경쟁 왕실이었던 티도레 왕실을 부활하여 그를 견제하려 한 것이다. 바찬 역시 1983년 마지막 왕의 서거 이후 왕실이 비어 있다가 1999년에 재수립되었다(Van Klinken 2007, 152; Jäger 2018, 91).

무다파르 샤는 할마헤라의 대군주의 자격을 내세워 키에 라하 중 마지막 왕실, 즉 자일롤로의 부활에 나섰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에 사라진 티도레나 바찬 왕실과 달리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다파르 샤는 왕실 후손을 찾기 위해 식민 기록까지 뒤졌지만 아무 데도 자일롤로의 혈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해루푸딘 사에푸딘 인터뷰. 2019. 8. 8). 그러다가 2001년에 무다파르 샤는 압둘라(Abdullah)라는 자바인이 자일롤로 왕실의 혈통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그를 술탄에 봉했다. 이 과정에 대해 두 명의 연구자가 무다파르 샤와 와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Jäger 2018, 140, 165-167; Bubandt 2009, 292-294) :

압둘라는 자바에 거주하는 퇴직 군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모하마드 아스가르(Mohammad Asgar)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모하마드 아스가르는 [19세기에] 누쿠에 의해 자일롤로의 술탄으로 임명되었던 아리프 빌라의 아들이었다. 아스가르는 자일롤로의 부활 운동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진압된 이후 1832년에 자바로 끌려갔다. 압둘라의 아버지는 아리프 빌라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캄퐁 멀라유(Kampung Melayu: ‘멀라유인의 마을’이라는 뜻)라는 지명이 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¹²⁾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압

12) 캄퐁 멀라유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 16세기 초에 말레이 반도에 있던 말라카 왕국이 무너진 후, 멀라유계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이 정착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들라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의 캄퐁 멀라유를 방문했다.

2001년에 압들라는 터르나테 북부에 있는 캄퐁 멀라유에 도착했다. 한편 무다파르 샤는 꿈에서 밝은 빛이 자신을 인도하던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압들라가 있었다. 압들라는 아버지가 유품으로 준 유리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3명의 사람 형상이 들어 있었다. 압들라는 그 형상이 자신의 조상인 자일롤로의 술탄들의 모습이라 설명했고, 무다파르 샤는 이를 상서롭게 여겼다. 이후 압들라는 터르나테 궁에서 무다파르 샤가 제시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터르나테 왕실의 조상신들이 내리는 영적 시험이었다. 그는 3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천 개의 날이 있는 칼 위를 다치지 않고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압들라가 술탄 즉위식을 마치고 나자 유리구슬 안의 사람 형상이 4명이 되었다.

2001년에 무다파르 샤는 압들라를 술탄으로 선포했고, 2002년 7월에 터르나테 왕실뜰에서 보바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즉위식을 개최했다(Mansur and Said 2018, 145). 2003년 9월에 자일롤로에서 다시 왕의 취임식이 열렸고, 압들라는 샤(sjah), 즉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이때 무다파르 샤는 왕관을 대신하는 모자인 페치 콜라노(pecci kolano)를 씌워주었다.¹³⁾ 압들라 샤(Abdullah Sjah)는 해안가에 새로 복원된 자일롤로의 왕궁(kadato ici)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무다파르 샤는 자일롤로의 모스크(Masjid Gamlamo)에서 왕실 관습 관료들인 보바토들을 임명했고, 이들로 구성된 관습 의회(Dewan Adat)인 타우 라하(Tau Raha)도 조직했다(Mansur and Said 2018, 145). 관습 의회는 말루쿠의 전통적인 정치 기구로 입법과 술탄 견제 기능을 가진 기구였다.

무다파르 샤의 자일롤로 부활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왕조에 대한 전

13) 자일롤로의 왕관은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왕관을 만들기 이전에 모자를 즉위식에 사용한 것이다.

설, 4개국 균형을 통한 태평성대 수립에 대한 오랜 신화, 그리고 누쿠와 다노 하산 등의 자일롤로 부활 운동 등의 역사적 과편을 접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무다파르 샤는 자일롤로의 붕괴로 말미암은 4개국 균형의 파괴가 말루쿠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새로이 균형을 복구하여 새로운 주의 번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오파 피르만 인터뷰. 2019, 8월 2일).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4개국이 끊임 없는 무역 전쟁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었고, 자일롤로를 붕괴시킨 것이 터르나테였다는 점, 그리고 바찬은 일찍이 정치, 경제적 센터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 등의 역사적 사실들은 이 내러티브에서 삭제되었다. 그는 또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압둘라의 출생 관련한 이야기를 아리프 빌라 사건과 연결하고 술탄의 권위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압둘라의 술탄 등극은 곧 자일롤로 현지 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판은 압둘라가 자바 출신으로, 당연히 현지 관습도 전혀 몰랐지만 관습의 수장이 되었다는 역설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가 19세기의 아리프 빌라의 후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무다파르 샤의 초자연적인 검증 방법 역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해루푸딘 사에푸딘 인터뷰. 2019. 8. 8). 설령 그가 아리프 빌라의 후손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앞서 설명한 대로 아리프 빌라 역시 자일롤로 혈통이 아닌 마키안 출신으로, 티도레에서 왕실 관료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은 비판 거리였다(Leirissa 1996, 151; Jäger 2018, 140). 압둘라 샤 뿐만 아니라 보바토 관료들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무다파르 샤가 선출한 보바토들은 압둘라 샤보다 무다파르 샤에 충성을 바쳤다. 그러자 압둘라는 그중 두 명을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으로 교체했다(Jäger 2018, 151). 또한 무다파르 샤가 할마헤라에서 천명한 대군주 역할도 많은 주민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Mansur and Said 2018, 148). 자일롤로의 주민들은 1620년 이후 터르나테가 자일롤로를 조공국으로 삼았

던 굴욕적인 과거의 질서를 무다파르 샤가 현대에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Mansur and Said 2018, 148).

주민 중에는 관습 대표로 혈통이 명확하지 않고 관습도 모르는 압둘라 샤가 아닌 무다파르 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지 사회에서 가장 극렬하게 압둘라 샤를 거부한 사람들은 토바루(Tobaru)와 사후(Sahu)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자일롤로의 멸망 이후 원주민들이 거의 떠나버리고 나자 술라, 토바루 등 북 할마헤라에서 이주해 거주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기독교를 수용했다. 이들은 과거에 대군주였던 터르나테 술탄에게 충성을 바치던 그룹이었다. 특히 토바루인들은 전통적으로 ‘터르나테 술탄의 과수꾼’이라고 불리며,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터르나테 술탄을 위해 싸운 전사들이었다(Jäger 2018, 150-151). 사후인들도 수백 년간 지방 의례에서 과거에 터르나테 술탄에게 의복과 춤을 하사받았던 기억을 재현해 왔다(Jäger 2018, 150-151). 토바루인과 사후인들은 자일롤로의 관습 대표는 무다파르 샤이며, 압둘라 샤는 무슬림들만의 대표라고 여겼다(Jäger 2018, 153). 말루쿠뿐만 아니라 왕실과 관습적 권력이 부활한 다른 지역에서도 관습 대표로 술탄이 복위된 경우, 이슬람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무슬림만을 대표한다는 논란이 주민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Müller 2013).

2010년이 되자 무다파르 샤와 압둘라 샤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해에 열리는 서부 할마헤라 군수 선거를 두고 충돌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 무다파르 샤는 압둘라 샤와의 상의 없이 군수 후보였던 헨드라 카리양안(Hendra Kariangan)을 자일롤로의 보바토인 상아지 말라모(Sangaji Malamo)로, 그의 러닝메이트인 부군수 후보인 자이누 압둘라(Jainudin Abdullah)를 카피타 말라모(Kapita Malamo)로 임명했다(Mansur and Said 2018, 150). 이들이 관습 관료가 되면 주민들의 지지도가 상승하리라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 무다파르 샤

의 개인적인 야심이 숨어 있었다. 당시 77세의 고령이던 무다파르 샤는 자신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게 되자 자바 출신의 4번째 부인, 보키 니타(Boki Nita Budhi Susanti)를 2013년 주지사 선거에서 부주지사로 당선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보키의 런닝메이트인 주지사 후보는 역설적으로 다름 아닌 무다파르샤의 정치적 라이벌, 타입 아르메인이었다. 타입 아르메인은 2001년 주지사 선거에서 최종 승리자가 된 후 재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하필 주지사 임기 중 무다파르 샤의 이복형제의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터르나테 왕실과 인척 관계로 얽히게 되었고, 보키와 짝을 이루어 선거에 재도전한 것이었다(Bubandt 2014, 105-108). 이 군수 선거는 서부 할마헤라 주민들의 보키 니타를 향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무다파르 샤의 보바토 임명은 압둘라 샤의 정치적 이익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압둘라 역시 서부 할마헤라 군수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무다파르 샤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관습 위원을 선출할 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간섭이라고 여겼다(만수르 150). 두 술탄 간에 갈등이 빚어지자 무다파르 샤는 압둘라 샤를 자일롤로 술탄에서 해임해 버리고, 자신이 자일롤로의 관습 관료로 임명했던 일함 다노 토카(Ilham Dano Toka)를 대리 술탄으로 임명했다(Mansur and Said 2018, 150). 이 일에 반대하며 자일롤로의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무다파르 샤를 규탄하는 데모를 개최했는데, 이들은 무다파르 샤가 자일롤로를 공국으로 여기는 과거의 관행을 현대에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Bubandt 2014, 108).

그러나 압둘라 샤는 해임을 거부하고 계속 술탄직을 이어갔다. 이로써 자일롤로에 압둘라 샤와 일함 다노 두 명의 술탄이 존재하게 되었다(Mansur and Said 2018, 150). 2013년 12월 23일에 자일롤로 왕실에서 새로 지어진 왕궁을 공개하는 행사(Jo Ou Wosa Kadato)가 열렸는

데, 이것은 압둘라 샤가 자신이 정당하고 유일한 술탄임을 재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바찬과 티도레의 술탄, 톨로다의 조구구, 서부 할마헤라의 군수와 지방의회 의장 등 북 말루쿠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했다(Mansur and Said 2018, 151). 특히 서부 할마헤라 군수의 참석은 압둘라 샤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었다. 매년 4-5월에 열리는 자일롤로 만(灣) 페스티벌 (Festival Teluk Jailolo)의 조직 위원회에서도 일함 다노가 아닌 압둘라 샤와 그의 보बाट들을 관습 대표로 초대했다(Mansur and Said 2018, 151). 그러자 무다파르 샤와 일함 다노는 압둘라 샤의 이러한 행동이 관습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Mansur and Said 2018, 152).

2015년 11월에 일부 자일롤로 주민들이 무하마드 시딕 카우칠 (Muhammad Sidik Kautjil)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술탄으로 추대함으로써 자일롤로에는 3명의 술탄이 난립하게 되었다(Mansur and Said 2018, 153-154). 2017년 10월에 압둘라 샤가 서거하자 자일롤로의 관습 위원회는 그의 아들인 로세누 헤루 프라워토(Rosenu Heru Prawoto)를 새로운 술탄으로 선출했다. 이후 로세누와 다른 두 명은 각자가 자일롤로의 정당한 술탄임을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무스타파 만수르 온라인 인터뷰. 2021. 04. 06).

자일롤로의 술탄까지 부활시키면서 지방정치에서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했던 무다파르 샤의 야심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주지사 선거를 위해 그가 행한 행보, 즉 할마헤라의 대군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수하르토 하야 직후의 민간 폭력 사태와 맞물리면서 화를 좌초한 것이다. 1999-2001년의 전국적인 폭력 사태 속에서도 북 말루쿠의 폭력사태가 가장 심각했다. 폭력의 시작은 할마헤라의 말리퓏(Malifut)이라는 지역의 기독교도 토착민들인 카오(Kao)인들과 이주민들인 마키안(Makian) 무슬림인들 사이에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일

어난 충돌이었다. 행정구역 개편이 붓물 터지듯 번지던 때에 수익성이 높은 금광이 있는 지역을 무슬림 마키안들이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고자 시도하면서 원주민인 카오인들과의 사이에 영역과 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곧 종교 갈등으로 비화하였다(Jäger 2018, 156; Wilson 2008). 이 갈등은 2001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북말루쿠 주의 주지사 선거와 관련지어 폭력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네 명의 유력 주지사 후보들은 각각 다른 기반의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해 폭력 사태에 개입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Wilson 2008, 74-78).

그 당시 무다파르 샤의 최대 맞수였던 바하르 안달리는 주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무슬림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Wilson 2008, 6). 반면에 무다파르 샤는 술탄이긴 했지만 터르나테 밖의 지역에서 최대 지지층은 토벨로, 사후인들 등 할마헤라의 기독교 인구였다. 말리퓏에서 처음 갈등이 불거지자 무다파르 샤는 카오인들에게 말리퓏에서 마키안인들을 타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Wilson 2008, 6). 그러자 전통적으로 터르나테 술탄과 경쟁적인 관계였던 티도레 술탄이 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양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당시 티도레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적 “라이벌”이었던 터르나테의 술탄의 권위가 확장되면서 할마헤라에까지 미치자, 북말루쿠 지역 내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Wilson 2008, 6, 74; Bubandt 2004, 17).

말리퓏에서의 폭력이 점차 주변 지역으로 번지자 대군주로서 할마헤라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무다파르 샤는 창과 도끼로 무장한 술탄의 관습 군대인 황색군(Pasukan Kuning)을 동원해 카오인들과 터르나테의 기독교인들을 터르나테 왕실에 은신시키고 보호했다(Hermkens and Timmer 2011, 63).¹⁴⁾ 그러자 티도레의 무슬림들은 황

색군에 대항하는 백색군(Pasukan Putih)을 조직하여 무슬림들의 편에서 폭력에 가담했다.¹⁵⁾ 곧 황색군과 백색군 간에 끔찍한 살상이 시작되었고, 황색군의 공격으로 무슬림이 10-20명 정도 희생되었다(Bubandt 2004, 12). 사실 희생자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터르나테 술탄의 군대가 무슬림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토착 사회의 분노가 일기 시작했고, 무다파르 샤가 기독교인들의 수호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Bubandt 2004, 17).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다파르 샤는 결국 2001년의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을 피해 기독교 지역인 마나도로 잠시 피신했다 돌아오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Bubandt 2014, 21, 88-89). 말루쿠의 폭력 사태가 진정되자 무다파르 샤는 다시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지만 북말루쿠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는 2007년에 72세의 나이로 북말루쿠 주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하고자 했지만, 선거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에서 그를 제외해 버리면서 꿈이 좌절되었다(Bubandt 2014, 85). 또한 앞서 설명했듯, 자바 출신 부인을 부주지사로 당선시키려는 계획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터르나테, 티도레, 자일롤로에서 술탄들의 지방정치 참여와 폭력 개입, 알력 다툼 등이 지속되자 북말루쿠 주민들 사이에서는 왕실 부활을 중심으로 한 관습 부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여전히 북말루쿠, 특히 무다파르 샤가 자란 지역인 북부 터르나테의 주민들은 왕실에 대한 큰 충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젊은이들은 개혁 이슬람 세력인 무하마디아(Muhammadiyah) 회원들이 많은데, 이들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습적 권력 부활을 비판하고 있다(아민 파룩 인터뷰, 2019년 7월 22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만 기구를 중심으로 한

14) 관습 군대는 왕실과 관습 관료들이 부활하면서 함께 부활했다.

15) 황색군은 착용한 의복의 색에서 비롯된 이름이며, 백색군은 머리에 두른 스카프의 색에서 유래했다. 황색군과 백색군 모두 무슬림들이었다.

풀뿌리 운동 형태의 관습 운동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면서 자일롤로에 아만의 지부가 설치되었다(Jäger 2018). 아만의 대표는 술탄을 제치고 여러 지역 내 개발 문제 등에서 관습 대표로 활약했다. 이로써 자일롤로에는 민중과 봉건 엘리트 중심의 한 관습 대표들이 이중으로 존재하게 된 셈이다. 아만의 활약은 봉건 엘리트 중심의 관습 운동이 대표성을 가지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무다파르 샤의 정치적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북말루쿠 군주들의 정치적 도전은 지속되고 있다. 현 티도레 술탄 후세인 샤(Husain Sjah, 재위: 2014-현재)는 2019년에 오랜 임원이었던 지역대표의회(Dewan Perwakilan Daerah)의 상원의원 입성에 성공했다. 터르나테에서는 무다파르 샤의 사후 계승 분쟁이 벌어져 술탄직이 수년간 공석으로 있다가 2021년 말에 무다파르 샤의 맏아들인 히다얏 무다파르(Hidayat Mudaffar)가 술탄에 선출되었다. 히다얏 역시 지방의회 의원 출마를 계획 중이다(무스타파 만수르 온라인 인터뷰. 2022. 3. 21). 또한 자일롤로의 술탄 로세누 헤루 프라위토도 할마헤라 지방의회 의원직에 후보로 나설 계획이다(무스타파 만수르 온라인 인터뷰. 2022. 3. 21). 이러한 사례는 전통 엘리트들이 현재의 인도네시아 지방에서 또 다른 정치적 액터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북말루쿠의 자일롤로 왕실 부활이 부활한 이유를 지방정치 간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북말루쿠의 관습적 권력 부활은 인도네시아에서 관습 부활이 지방정치의 또 다른 핵으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사례이다. 인도네시아에 수립된 모든 봉건 왕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왕족은 전통 시대에 축적된 군주로서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일롤로의 왕실 부활은 정치적 야심가였던 터르나테 술탄의 작품이었지만, 곧 티도레와 자일롤로 등 왕족들이 터르나테 술탄이 했던 대로 지방정치에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이들은 군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전통 관료 체계와 왕실 군대를 복원하고, 기원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비주의적 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혈통의 고귀함과 리더십을 강조해 왔다. 특히 무다파르 샤의 경우에는 자일롤로의 왕실 부활을 위해 수백 년 전부터 지역에 내려오던 전설, 즉 키에 라하 4개국의 균형 회복을 통해 지역 부흥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장하며 사라진 왕실 후손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그의 이러한 클레임의 배경으로 터르나테와 과거에 향유했던 대군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봉건 엘리트 세력의 부활은 지방정치에서의 주역이 군부에서 토착인(*putra daerah asli*)들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들의 권위가 아직 지방 사회에 살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인기는 과거 수하르토 정권이 보여준 자바 중심주의적 개발, 그리고 군부의 정치화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인다. 왕실이 가진 초 종족성 등의 순기능이 종족 간, 지역 간 폭력이 심화하였던 개혁기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자일롤로술탄이 무슬림들만의 관습 대표로 인식되거나, 터르나테 술탄이 기독교의 수호 세력으로 인식되는 등 관습의 포괄성(*encompassment*)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개혁기의 민주화와 아만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관습 운동 세력은 봉건 엘리트들이 지방정치에서 또 다른 정치적 액터로 등장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무다파르 샤에 의한 자일롤로 왕실의 부활은 사라진 역사과 관습을

복원하여 현대의 정치, 경제적 목표에 맞게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역사와는 별개로, 신화에 과편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접합하고, 현재의 내러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삭제하는 ‘접합’ 과정을 통하여 자일롤로 복원의 당위성과 실제적 절차를 수립했다.

투 고 일: 2022년 05월 30일

심사 완료일: 2022년 08월 11일

계재 확정일: 2022년 08월 11일

참고문헌

- 송승원. 2016. “왕실 유물의 기능적 소비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북 말루꾸의 왕권 및 정치체제 연구.” 『국제지역연구』 20(3): 147-176.
- Amal, A. 2007. *Kepulauan Rempah-rempah: Perjalanan Sejarah Maluku Utara 1250-1950*. Jakarta: Gora Pustaka Indonesia.
- Andaya, L. Y. 1993. *The World of Maluku: Eastern Indonesia in the Early Modern Perio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nderson, B. R. O. G. 1972. *Java in a Time of Revolution: Occupation and Resistance, 1944-1946*.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ubandt, N. 2009. “Interview with an Ancestor: Spirits as Informants and the Politics of Possession in North Maluku.” *Ethnography* 10(3): 291-316.
- Bubandt, N. 2014. *Democracy, Corruption and the Politics of Spirits in Contemporary Indonesia*. London: Routledge.
- Clercq, F.S.A. de. 1999. *Ternate: The Residency and Its Sultanate*.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Libraries Digital Edition. [First published in 1890 as *Bijdragen tot de Kennis der Resident Ternate*. Leiden: Brill.]
- Coolhaas, W. Ph. 1923. “Kroniek van het Rijk Batjan.” *Tijdschrift voor Indische Taal-,Land- en Volkenkunde*. 63. 474-512.
- Eindhoven, M. H. S. Nordholt and G. van Klinken, eds. 2007. “New Colonizers?: Identity, Representation and Government in the Post-New Order Mentawai Archipelago.” *Renegotiating Boundaries: Access, Agency and Identity in Post-Soeharto Indonesia*. Leiden: KITLV Press. 67-89.
- Fraassen, C. F. V. 1987. *Ternate, de Molukken en de Indonesische*

Archipel. Leiden: Leiden University.

- Hadiz R. V. 2010. *Localising Power in Post-Authoritarian Indonesia: A Southeast Asia Perspectiv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 S. 1986. "On Postmodernism and Articulation: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10(2): 45-60.
- Harsono, D. 2018. "A Monarchy without a Kingdom: Yogyakarta's Exceptional System of Government." Ph. D. dissertation, La Trobe University.
- Harvey, B. S. 1989. *Pemberontakan Kahar Muzakkar: dari Tradisi ke DI/TII*. Jakarta: Pustaka Utama Grafiti.
- Hasim, R., Syawal, A. and K. Mohtar. 2021. "A Sultan of Ternate, Mudaffar Sjah, and the Local Politics Consolidation during the New Order Era from 1966 to 1998." *Jurnal Ilmu Budaya* 9(2): 7-22.
- Hermkens, A. K. and J. Timmer. 2011. "Conflicting States: Violent Politics in North Maluku, Indonesia." *Etnofoor* 23(2): 56-77.
- Hobsbawm, E. Hobsbawm, E. and Ranger, T., eds. 1983.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äger, K. 2018. *Das Sultanat Jailolo: Die Revitalisierung von 'Traditionellen' Politischen Gemeinwesen in Indonesien*. Berlin: lit Verlag Münster.
- Kahin, A., ed. 1985. *Regional Dynamics of the Indonesian Revolution: Unity from Divers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ahin, G. M. 1952. *Nationalism and Revolution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mma, F. C. 2013. *Koreri Messianic Movements in the Biak-Numfor Culture Area*. Koninklijk Instituut Voor Taal-, Land-, En Volkenkunde Translation Series 15.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Katoppo, E. 1984. *Nuku: Riwayat Perjuangan Kemerdekaan di Maluku Utara 1780-1805*. Jakarta: Penerbit Sinar Harapan.
- Leirissa, R. Z. 1996. *Halmahera Timur dan Raja Jailolo: Pergolakan Sekitar Laut Seram awal Abad 19*. Jakarta: Balai Pustaka.
- Li, T. M. 2000. "Articulating Indigenous Identity in Indonesia: Resource Politics and the Tribal Slot."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2(1): 149-79.
- Magenda, B. D. 1989. "The Surviving Aristocracy in Indonesia: Politics in Three Provinces of the Outer Islands (Volumes I and II)."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Mansur, M. and R. Said. 2018. "Dinamika Social-politik Kesultanan Jailolo (2002-2017)." *Jurnal Ilmiah Kebudayaan dan Kesejarahan* 5(2): 136-61.
- Müller, S. B. Hauser-Schäublin, ed. 2013. "Adat as a Means of Unification and Its Contestation: The Case of North Halmahera." *Adat and indigeneity in Indonesia: Culture and entitlements between heteronomy and self-ascription*.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 Nishijima, K. 2021. "The Dayak 'Kingdom' and Indigenous Sovereignty in Ketapang Regency, West Kalimant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Society of Oxford* 8(2): 103-129.
- Nordholt, H. S. and G. van Klinken. H. S. Nordholt and G. van Klinken, eds. 2007. "Introduction." *Renegotiating Boundaries: Local Politics in Post-Suharto Indonesia*. Leiden: KITLV Press.

- Ooi, K. G. 2011. *The Japanese Occupation of Borneo, 1941-1945*. Oxon and New York: Routledge.
- Reid, A. 2014. *The Blood of the People: Revolution and the End of Traditional Rule in Northern Sumatra*. Singapore: NUS Press.
- Rubinstein, R. and L. H. Connor. 1999. *Staying Local in the Global Village: Bali in the Twentieth Centu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hiraishi, T. 1986. "Islam and Communism: An Illumination of the People's Movement in Java, 1912-1926."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Song, S. W. and M. Mansur. 2021. "The Revival of Adat and the Articulation of the 'Kingdom Slot' in Loloda, North Halmahera, Indonesia." *Bijdragen tot de Taal-, Land-en Volkenkunde/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f Southeast Asia* 177(2-3): 312-343.
- Thufail, F. I. Hauser-Schäublin, B., ed. 2013. "Becoming Aristocrats: Keraton in the Politics of Adat. Adat and Indigeneity in Indonesia." *Adat and Indigeneity in Indonesia-Culture and Entitlements between Heteronomy and Self-Ascription*.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 Van Klinken, G. 2004. "Return of the Sultans: After the New Order, Pomp and Ceremony is Returning to Dusty Palaces all over Indonesia." *Inside Indonesia* 78. n.p.
- Van Klinken, G. J. Davidson and D. Henley, eds. 2007. "The Return of the Sultans: The Communitarian Turn in Local Politics." *The Revival of Tradition in Indonesian Politics: The Deployment of Adat from Colonialism to Indigenism*. London: Routledge. 149-169.

- Van Klinken, G. and H. S. Nordholt. 2007. *Renegotiating Boundaries: Local Politics in Post-Suharto Indonesia*. Leiden: KITLV Press.
- Warnk, H. 2010. “The Coming of Islam and Moluccan-Malay Culture to New Guinea c. 1500 - 20.”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38(110): 109-134.
- Widjojo, M. S. 2009. *The Revolt of Prince Nuku: Cross-cultural Alliance-making in Maluku, c. 1780-1810*. 12. Leiden and Boston: Brill.
- Wilson, C. 2008. *Ethno-religious Violence in Indonesia: From Soil to God*. London: Routledge.

신문 기사 검색

- Fajri, Dwi Latifatul. 2022. Mengenal Provinsi dan Jumlah Kabupaten di Indonesia. Katadata Media.
<https://katadata.co.id/intan/berita/6206141e9ca33/mengenal-provinsi-dan-jumlah-kabupaten-di-indonesia> (검색일: 2022.04.23.).
- Majelis Adat Kerajaan Nusantara Minta Kerajaan Palsu Ditindak. *Media Indonesia*. 2020/1/29.
<https://mediaindonesia.com/nusantara/286675/majelis-adat-kerajaan-nusantara-minta-kerajaan-palsu-ditindak> (검색일: 2022.04.09.).

Abstract

The Revival of the Jailolo Sultanate and Regional Politics in North Maluku, Indonesia

SONG, Seung-Won

Professor

Dept. of Malay-Indones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y analyzing the revival of the Jailolo Sultanate in 2003,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s of the revitalization of Adat centering kings in local politics in Indonesia. Jailolo had collapsed in the 16th century, but Sultan Mudaffar Sjah of Ternate declared that he found a descendant of the lost royal family and inaugurated him as the king of the newly revived kingdom. This act was a political strategy of Mudaffar Sjah to gain popular vote in the upcoming gubernatorial election scheduled for 2001 in the newly-created North Maluku Province. Parallel to emphasize his traditional authority as the ruler of Ternate, he also elevated his position as the overlord of Halmahera, followed the examples of the precedent sultans of Ternate. In doing so, he claimed himself as a culture hero, who would revive the mythical power balance of four central states of Maluku to bring regional prosperity, which was based upon the popular Millenarian beliefs. The revival of Jailolo demonstrates that feudal elites emerged as another key participants in

local elections. Yet,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s received criticisms by the advocates of democracy and grass-root Adat movements. The Adat revival based upon kings also showed a problem of encompassment, which means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kings to gain supports from the entire population.

Keywords: Halmahera, Indonesia, Jailolo, Mudaffar Sjah, North Maluku, Ternate